

ESG와 시민의 행동 교과목 기말고사 대체 과제

■ ESG와 시민의 행동 교과목 소개서 작성

질문	타인이 ‘ESG와 시민의 행동’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무엇을 배우냐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 혹은 ‘ESG와 시민의 행동’ 과목을 통해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Dataset Search
답변 (공백 포함 1000자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가지 늘릴 수 있는 강의라고 설명하고 싶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는만큼 보인다.’는 것이다. 강의 때도 짧게 다룬 적이 있는데, 막연히 ‘환경은 지켜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취해야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 또한 ‘환경’ 이슈에 대한 자각은 있었지만 딱히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 또한 생각했던 환경 보호 실천 방식이 분리수거 잘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정도뿐이었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아니었고, 그저 무의식 속에 자리잡힌 활동이어서 내가 환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으니 관심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ESG와 시민의 행동 강의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심이 곧 내가 사는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을 한 가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운다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에 더해서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키우는 것이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숙사 1층에 있는 Goodwill store를 다시 바라본 것처럼 나는 그저 개념을 알고 해당 기업을 아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일깨우는 경험을 하였다. 우리팀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의 활동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만나길 바란다. ESG와 시민의 행동의 특징을 한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큰 특징은 평어를 사용하는 수업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 의견을 나누는 것에서 새로운 시각을 키우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할만큼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말투가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평어를 사용하니 생각보다 나의생각을 더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설득하는데도 상당한 이득이 된 것 같다. 대학생활에서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학우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바이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수업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맞추는 것에 흥미를 느껴 본 강의를 수강하였고, 기대한 그 이상의 것을 얻어갔다. 대학을 와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것에 큰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하는 바이다.

■ 자기 발견 보고서

질문	팀 활동에서 아쉬웠던 나의 모습이나 더 노력해보고 싶었던 영역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
답변 (공백 포함 500자 이상)	‘춤추는 강아지와 함께 떠나는 바다여행’ 줄여서 ‘춤강떠바’ 팀에서 패스트 패션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했다. 싼 가격에 쉽게 구매하고 쉽게 버려지는 탓에 패스트 패션 산업은 제조와 사용 과정에서 큰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춤강떠바 팀에서는 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를 하기도 하고, 직접 수선을 해보기도 하고, Goodwill Store에 기부를 해보기도 했다. 또 반쯤된 의류는 대부분 매립지에 묻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염과 하자는 감안하고 옷을 입겠다는 팀원도 있었다. 개인별로 활동을 진행하고 모여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개인별로 나눠서 활동을 하다보니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흔히 집단지성이라고 불리는 더 나은 차원의 활동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다. 나는 학교 기숙사 1층에 있는 Goodwill Store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의류수거함인 줄 알았다. 찾아보니 꽤 유명한 기부수단이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우리 조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은 탐구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든다.
질문	이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어 이후 내 삶에서 자꾸 관심이 가거나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있다면, 누구 혹은 무엇인가?
답변 (공백 포함 500자 이상)	아무래도 ESG라는 단어 자체에 눈길이 자주 간다. ESG와 시민의 행동을 수감하지 않았을 때는 ESG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 모르다보니 어떤 소식이 들려도 그냥저냥 흘려버렸다. 그런데 요즘은 지나가던 포스터에도 ESG라는 단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게되고, 다른 교과목에서도 ESG가 나오면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었다. 놀라웠던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 가게들이 많았다. 역시 내가 몰랐던 세상이 너무나 넓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우리 대학 주변을 돌아보니 생각보다 환경이나 복지에 관련된 시설, 서적, 강의, 캠페인들이 많았다. 역시 머릿속에 든 정보가 없으니 그저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한 번 읽어보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기도 하고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ESG와 시민의 행동’이라고 해서 환경을 중점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현상도 다루어서 더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었다.

질문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시민으로서 다르게 행동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답변 (공백 포함 500자 이상)	네이버 웹툰 중에 ‘홀리데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주된 화두로 설정하고 스토리를 진행해간다. 최근 화에서 플라스틱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 중에 주인공의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 “제일 절망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국가가 알고 있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알고 있고 - 국민 모두 5분만 검색하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알면서도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u>현재가 편하고 변화는 불편하니까.</u>” 공감되는 말이었다. 나조차도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당장에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편했고 더 한 것도 많았다. 시민으로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한 특별한 노력으로 환경오염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는다. 개인의 노력이 환경오염을 막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강의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었다. 내가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바는 환경에 신경 쓰는 기업들을 주시하고 그들의 제품을 활용하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해당 내용에 노출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적응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자유롭게 표현하기

질문	하고 싶은 말, 건의하고 싶은 말, 다음 학기 수강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등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 (글자 수 제한 없음)	1번과 내용이 비슷한 듯하다. 나와 같이 환경에 대한 언급은 들어본 적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잘 모르고, 그에 대해 조금 더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강의이다. 환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현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과연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일까 고민하게 하는 강의이다.